

Radical Disciple VI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실상입니다.

1.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질문이다. 신앙은 이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리고 창조주로 그 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 그 창조안에 내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고제한다.

위의 고백이 분명해야 존재하고 있는 나를 알 수 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존재의 가치를 안다는 것이다. “나는 물건이 아니다. 나는 누구의 소유물도, 종도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 억압받거나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성경은 내 존재의 가치를 분명히 한다.

[창세기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사람만을 특별히 흙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이와같은 존재를 ‘사람’이라 하셨다. 사람의 존재에 대하여 이보다 명확한 정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만큼 가치있는 존재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에서 말하는 죽으면 천국간다는 개념이 아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에덴과 같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만큼 가치있는 영적인 존재의 사람이다.

2. 가장 소중한 ‘나’

내가 생령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정체성이다.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삼위일체 에하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에하드 하나님의 속성은 세 분이 다른데 한 분이라는 비밀이다.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다른데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비밀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몸이란 내 생각만큼 상대의 생각, 감정,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의 단어로 이 신비를 표현해 본다면 ‘성숙함’이라 말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토피이지만 너무나 정교하게 맞물려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시계와 같다. 모든 만물이 서로 다르지만 각자의 다양성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말한다. 자연계에서 우주안에 그 아름다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셨다는 것의 반증이 아담의 생각을 존중하셨다는 것이다. 아담의 생각으로 부르는 호칭이 각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다.

[창세기 2: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놀라운 사실이다. 하나님이 아담의 생각 자체를 온전히 존중하셨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아담의 자유함이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큰 권세이다.

3. 아는 것에 대한 확신

‘진리’가 주는 선물은 하나이다. ‘자유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이다. 존중 받을 수 있는 자유이다. 아담이 가졌던 진정한 자유란,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라 여기는 ‘확신’을 말한다.

내가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얇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핵심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결여된 세상이다. 그래서 많이 알아도 복잡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신이 ‘믿음’의 정의이다. 군중과 제자의 차이점은 바로 ‘확신’에 있다.

십자가 사건 후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 이유가 그들 안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까지 치유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들의 믿음은 그래서 흔들릴 수 없었다. 그 확신위에 성령은 오셨다. 기도하라고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부탁 앞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은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장면과 같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제자들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하신다.

4. 정체성의 파괴 - 생각의 파괴

사탄의 미혹은 아담이 확신하고 있는 생각에 대한 미혹이었다. 확신 가운데 ‘불신’을 주었다. 불신은 의심이다. 의심하는 그 순간 모든 존재가치는 생명력을 잃는다. 힘을 잃는다. 아담의 불신은 곧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절이다. 오늘 내가 의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모든 영역은 단순히 나의 불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절이다. 그래서 사탄은 힘을 다해 성도를 파괴하려 한다.

의심은 결국 아담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육이 되게 하였다. 그것의 결과는 생각의 오염으로 나타났다 (육의 생각은 사망). 끝이 사망이다. 불안함이다. 한계이다. 두려움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구조안에서 답이 없다. 그 때부터 다른 ‘진리’ 체계를 만든다. 하나님 없이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인간만의 만족의 구조를 만든다. 그것이 바벨탑이다.

바벨탑 또한 ‘하나’이다. 한 몸이다. 그런데 이것은 기형적 한 몸이다. 규격화된 벽돌로 쌓는 성이다. 획일적이다. 상상력이 있을 수 없다. 메뉴얼대로만 살아야 한다. 바벨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원래 나’를 죽여야 한다. 그리고 바벨탑이 만든 ‘나’를 덧입어야 한다.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 존중됨은 없다.

우리는 그와 같은 세상에서 지금도 산다. 세상이 만든 조건과 자격이 없으면 불안하다. 바벨이 만든 피라밋 구조안에 있어야 한다. 육의 생각을 정당화 한다. 사망을 정당화 한다. 사망은 하나님의 창조계획 안에 없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지만, 사망은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 해답이 없는 것이었다.

5. 결국 허상이다.

결국 육의 생각으로 지어진 모든 것은 마지막으로 가면 ‘사망’이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 사람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로 걱정했다. ‘내 신념, 내 힘, 내 본능’이 중요하다. 세상이 정한 기준을 잘 따라가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막연한 미래에 대한 생각이 허상이다.

허상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여기며 살게 하는 것이다. 결국 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한다. 반면, 실상은 영원히 남을 것을 말한다.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분명해진다.

6. 무엇이 실상인가? 나의 선택과 결정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실패한 아담의 저주를 풀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즉, 내가 얼마나 가치있는 존재인지 안다는 것이다. 죄인으로 사망이 언도된 나를 의인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고백한다.

의는 부족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나를 찾았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중한 나를 다시 찾았다는 것이다. 다시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비교 당하지 않는 나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세상의 조건에 부합된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나'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아는가? 그 증거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나는 오직 하나이다. 즉 내 생각, 내 감정, 생김 것 하나까지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이 세상속에서 강력한 능력이 있다. 세상흐름에 역류하는데 자유하다. (옥을 탈출하지 않는 제자, 자신의 소중한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는 제자 등) 오늘 나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허상을 선택할 것인가? (사탄의 미혹), 실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

[신명기 30:19]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놀라운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제자는 무엇을 선택하는지 아는 것이다.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과 복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따르는 것이다. 결국 신뢰이다.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다. 눈에 보이는 먹음직한 허상을 선택하지 말자. 세상의 눈에 초라해 보이는 것이라도 진짜를 택하라. 그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 기쁘게 선택하자. 예수를 선택한 제자들의 삶은 가장 영광스럽다. 아멘